

[나와 《길림신문》]

◎ 이정희

신문지상에 피어난 내 인생의 ‘두번째 꽃’



저자 이정희

30년 가까이 이어온 직장생활이 끝났을 때 나는 스스로가 사용 기간이 만료된 물건처럼 느껴졌다. 아침마다 출근하며 맞이하던 그 익숙한 패턴이 사라지자 시간은 무겁게 흘러갔다. 서재에 쌓인 책들, 창가에 놓인 커피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그때까지 나는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에 가려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던 서재 구석에 놓인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길림신문》을 발견했다. 그동안 구독만 하던 신문이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내 글도 한번 발표해보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나는 노트를 꺼내들고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로년의 감정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한줄 한줄 적어내려가는 시조는 마치 돌을 깎아 조각품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조 10편을 완성하고 원고를 《길림신문》 편집부로 보냈다. 처음으로 시조 10편을 써서 투고했을 때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중 〈로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된 시조는 로년의 외로움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담아내려 애쓴 작품이었다. 원고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연 내가 쓴 작품이 실릴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만 한 기대 반이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각조각 흠여지는 것 같았다.

매기 《길림신문》마다 문학편을 펼쳐보았다. 한주, 두주, 한달, 두

달이 지나도록 내 작품은 보이지 않았다. 아, 역시 내 글은 부족한가 보다 하며 실망하고 있을 때 쯤, 2024년 12월 17일자 신문에 활자로 박힌 내 이름 석자와 함께 〈로년의 삶 (외 3수)〉이 실린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몇번이고 다시 읽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본 것처럼 그 기쁨은 순수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나의 첫 시조가 발표되던 날은 지금도 기억이 또렷하다. 내가 쓴 글이 세상에 나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고 내 마음에 이렇게 정겹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정말 꿈만 같았다. 무엇보다 처음이란 것에는 설레임이 있다 보다. 처음 받아본 원고로도 역시 설레임이었다. 돈이 아닌 마치 문학상이라도 받은 듯한 성취감을 느꼈다.

첫 작품이 실린 후 나는 조금씩 변해갔다.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과 달라졌다. 길가에 핀 들꽃, 지나가는 로인의 표정, 아침 이슬에서도 시적인 순간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길림신문》에 두번째로 투고한 수필 〈석양의 빛은 왜 아름다운가?〉는 빛을 잃은 순간조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석양처럼 내 인생 한구석에 남은 하얀 여백에 나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를 소망해보는 글이었다. 투고한 지 얼마 안되어 《길림신문》 편집부에서 소식이 왔다. “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다음달에 실을 예정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마치 프로작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 흥분 상태에 빠져들었다.

《길림신문》은 나에게 단순히 구독 신문이 아니었다. 단지 글을 실어주는 매체도 아니었다. 내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자 나도 글을 쓰면서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늦게 시작한 문학이지만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친구 같기도 한 존재였다.

글을 쓰는 것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일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신문에 내 이름이 활자로 찍혀나올 때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면서 신문지상에 피어난 내 인생의 두번째 꽃향기를 음미해본다.

조선족 대학생들 홍색주제활동으로 애국정신 고취



북경조선족애심장학회와 중국조선족학생센터(KSC)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25 북경 조선족 대학생 홍색주제활동 및 제21기 장학생 총화회의’가 5월 18일 북경에서 개최됐다.

일행은 당일 오전에 통주 료화중학교에서 주문빈렬사 동상 참배, 화환 진정, 혁명사적 소개 등 홍색교육 행사를 진행하며 조선족 대학생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취했다. 이어 열린 웅변경연에서 대학생들은 혁명정신 계승과 시대적 사명감을 주제로 열정에 찬 연설을 했다.

오후, 망경(望京) 자하문에서 열린 제21기 장학생 총화회의는 북경조선족애심장학회 부리시장 한통갑의 환영사와 사무총장 리란의 장학

회 연혁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어 제21기 장학생 2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웅변경연, 주제 글짓기 대회와 미니영상 제작 등 응모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와 대학생 자원봉사자 8명을 표창했다. 북경조선족애심장학회 명예리사장 김창주와 전국애심녀성포럼 의장 리영은 영상으로 축하와 함께 장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여를 당부했다.

2001년에 설립된 북경조선족애심장학회는 지금까지 57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홍색교육, 학술교류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행사는 조선족 대학생들의 역사적 책임감 강화와 장학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주동기자

장애를 뛰어넘어 세상을 감싸안은 따뜻한 마음

— 계모의 사랑으로 배운 나눔과 용기, 80 여개 위챗 동아리서 희망 전파

룡정시에 살고 있는 양명금(65세)은 어린시절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비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긍정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녀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감사로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양명금의 삶은 계모의 사랑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3살 나던 해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의 손에서 자란 그녀는 계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장했다. 계모는 양명금을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고기불이를 막지 않는 그녀를 위해 항상 색다른 음식을 따로 준비해주었고 생일이면 어려운 살림에도 특별히 기장밥을 해주는 등 따뜻한 정성과 보살핌으로 그녀를 감동시켰다. 특히 양명금의 장애 치료를 위해 어려해 동안 줄곧 병원에 얹고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그 결과 그녀는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초중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계모는 돼지를 키워 팔아 손에 쥘 목돈으로 양명금에게 비싼 손목시계를 사서 선물하면서 시계처럼 끊임없이 분투하라고 용기와 격려를 남겨주었다. 이처럼 계모의 사랑은 양명금이 타인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2013년, 양명금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시련을 겪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애로 인해 그동안 사회와의 접촉이 적었던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지만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용기를 내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사회와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녀



사람들과 더불어 용기와 신심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 양명금

는 연변장애인협회에 가입했고 연변 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 연변사랑송협회, 연변디카시협회 등 다양한 협회를에서 활동하며 세상을 향한 마음의 창을 넓혔다.

그녀의 수필 〈계모의 끝없는 은혜〉는 연변장애인협회와 연변작가협회 산문분과에서 공동 주최한 연변지체장애인 제1회 문학상 공모에서 1 등상을 수상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또 다른 수필 〈시아머님과 함께했던 나날들〉은 연변라디오방송국의 생활수기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글쓰기 재능을 인정받았다.

양명금은 단체활동뿐만 아니라 위챗을 통해 긍정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도 힘썼다. 그녀는 현재 80 여개나 되는 위챗 동아리에서 활약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무와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의 송호호 회장은 “양명금의 글들은 강의한 의력과 올바른 삶의 신조로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 전진의 나팔과 같다.”며 그녀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

연변디카시협회에서 양명금은 사진을 통해 느낀 감정을 시로 표현하며 문학 창작에 매진했다. 그녀의 디카시는 천편이 넘을 정도로 풍부하며 세상

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어 독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비관하고 실망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에게 어울리는, 제 능력에 가능한 일이라면 저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더불어 힘내고 용기와 신심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양명금의 허심탄회한 속심말이다.

/안상근 김파 기자



2025 대학입시 초읽기! 6 가지 시험 준비 지침

2025년 전국 대학입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동시에 건강, 식습관, 심리 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바 아래 시험 준비 지침을 잘 소장하여 수험생들이 좋은 상태로 대학입시를 맞이하기 바란다.

1. 식습관은 규칙적이어야 한다

수험생의 평소 식습관과 규칙을 바꾸지 말고 낯선 식재료나 자주 먹지 않는 음식을 피하여 위장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는 수험생에게 평소 자주 섭취하면서도 소화 흡수가 쉬운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험전에 보충제나 건강보조제를 추가로 먹을 필요 없이 일상적인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면 된다.

2. 적당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

수험생은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다. 레를 들면 산책, 체조, 조깅 등은 기분 안정과 이완에 도움이 된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레를 들면 체력 소모가 많고 피로감이 발생하기 쉬운 톱구, 바드민턴 등 구기운동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수영이나 등산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예상치 못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과학적인 공부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평소의 노력이다. 지금은 그 노력을 다지는 단계일 뿐이다. 수험생들은 밤을 새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평소 시험을 앞둔 시간대에 기상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생물시계를 평소 시험 때와



AI 생성 이미지

동일한 상태로 조정해야 한다. 잠들기 1시간전에는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4. 인지 관념을 조절하고 ‘평정심’으로 대해야 한다

비록 대학입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며 한번의 시험 성적이 미래의 발전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현재 상황 즉 자신의 장점과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모든 과목에서 완벽함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야 한다.

5. 편안하고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모의 감정은 감염, 암시 등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수험생에게 영

향을 미친다. 부모는 아이에게 너무 높은 목표를 주지 말고 모의고사 성적을 지나치게 따지지 말아야 한다. 평소와 같은 가정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며 아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고 배려심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감정 교류를 많이 하고 아이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하며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6. 비상약상자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다양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초여름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감기, 두통, 설사, 열사병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험생 부모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병증에 맞춰 작은 약상자를 준비하여 대학입시 기간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인민넷 - 조문판

아이의 AI 사용, 단칼에 금지해야 할까?

최근 교육부는 〈중소학생 인공지능 교양교육 지침(2025년판)〉과 〈중소학생 생성식 인공지능 사용 지침(2025년판)〉을 발표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가 AI를 사용하는 것을 단칼에 금지해야 할까?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저조휘 연구원은 “단칼에 금지할 수 없다. 지금 아이들의 미래 생활환경은 생성식 AI가 작용하는 환경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아이가 생성식 AI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한다면 이 아이는 미래 사회에서 기본 기술과 교류가 모두 제한될 수 있다. 아이에게 AI를 배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부모 자신도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표했다.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AI를 사용할 수 있을까? 아이가 일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AI를 사용하여 숙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아이가 능력을 갖추고 더 높은 수준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여야 한다.

많은 아이들이 가상세계에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한다면 이는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불리하다. 한 사람의 정상적인 구조는 일정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특히 대과학자가 되려면 반드시 충분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인민넷